



김 남순 수녀입니다
 한 낮의 열기가 서서히 걷히어
 갈 때면 인생의 저녁을 생각합니다.
 뜨는 해도 좋지만 지는 해도 아름답습니다.
 모든 만물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다해 세상에 아름다움을 주고
 자신의 때가 저물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저도 이제 아름답게
 되돌아갈 준비에 게으르지
 않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시각장애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서 육신의 눈으로가
 아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이웃을
 만나는 아름다움을 보았고 인간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나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보는 놀라움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배웠습니다.



요즘 동양화 사군자를 배우면서
 여백의 의미와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나에게 고요하고
 다른 사람에게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에 공감 합니다



특별히 두 관구가 하나 되는
 노력은 각기 다른 것을 없애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직한 고유한 아름다움을 조화롭게
 키워감으로서 마더 씨튼이 보여주신
 사랑의 어머니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I am Sister Nam Sun Kim.

When the midday heat slowly cools down in the late afternoon, I think about my life and compare my life with nature on this late afternoon. Sunrise is beautiful, sunset is also beautiful. All creatures work hard, time to time, and show their beauty to the world, and when their time is up, they go back to their origin. I think it is my time to prepare diligently to return beautifully to my origin.

I worked and lived with blind students for many years. From them, I saw, learned and experienced the way they meet people and see the world, not by their physical eyes, but with their hearts. Also, I learned and felt a limitation that we can't judge by what we see only with our eyes. I was surprised that these students' view of the world is broader, higher, and wider than mine. And it is so beautiful.



These days I am learning "Oriental Calligraphy." "Four Gracious Plants" (plum, orchid, chrysanthemum, and bamboo) painting. When I am painting, my mind is relaxed and I focus solely on its beauty. I agree with the old saying: "When I empty myself, it is quiet and beautiful to others."



I wish that our efforts to unite two provinces, Korean and American, does not eliminate our cultural differences, but seek harmony with the beauty of each as shown by Elizabeth Seton's motherly love.